

“아름다운 풍광, 한적한 전남해변서 무더위 날려요”

여수 웅천천수공원·무안 톨마리
영광 가마미·진도 가계해수욕장
도, 별미 결집된 7월 관광지 추천

전남도가 아름다운 풍광 아래 한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7월 추천관광지로 여수 웅천천수공원·무안 톨마리·영광 가마미·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선정했다.

여수 웅천천수공원 해수욕장은 도심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이다.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패들보드, 카약, 윈드서핑,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캠핑장도 이용할 수 있다. 해변 옆 진섬다리를 건너 예술의 섬장도까지 도보로 이동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등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름 여행 명소다. 개장일은 8월 17일까지다. 여수의 해풍 맞고 자란 갯감치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소개된 갯장어 요리로 몸보신과 함께 무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을 수 있다.

무안 톨마리 해수욕장은 서남해안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갯벌과 백사장이 장관이다. 알고 완만한 수심 덕분에 어린 아이도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해송 숲 사이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이용해 캠핑과 함께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톨마리 해수욕장의 상징인 비행기 모양의 등대와 여우러지는 낙조 풍경과 야간경관 조명은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해 낮부터 밤까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개장일은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무안 낙지골목에서 탐사르스자로 등 록된 청정 갯벌에서 잡은 세발낙지로 만든 연포탕, 탕탕이, 갈낙탕 등 다양한 낙지요리를 맛보며 더위로 지친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은 발달 모양의 넓은 백사장 뒤편에 2,000여 그루의 곰솔이 해안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다. 바닷물이 맑고 모래가 고와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아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아쿠아월드), 포토존이 조성돼 다채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올망졸망 떠 있는 섬들을 배경으로 칠산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환상적 서해 낙조는 빼놓을 수 없는 영광의 풍광 명소다. 개장일은 18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범섬포 굴비거리에서 즐기는 덕자찜, 보리굴비 정식도 제격이다.

진도 가계 해수욕장은 현대판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회동마을에 자리잡고 있어 한반도 남쪽 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백사장 길이 약 3km에 달하는 넓은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요트·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개장일은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전복과 홍합, 바지락 등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얼큰한 해물탕과 영양 가득한 전복죽은 여름철 대표적 원기 회복 음식으로 꼽힌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10일 “전남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해양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라며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여름 별미를 맛보며 진정한 휴가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오후 9월 개통 예정인 전남 남해선 ‘목포~보성’ 구간의 영업시운전 열차 출발을 축하하며 관계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9월 개통 ‘전남 남해선’ 사전점검

목포 임성~보성 82.5km
1시간 3분으로 대폭 단축

전남도는 전남 남해선(목포~보성 구간) 정식 개통에 앞서 10일 시승 및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 회 의장,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이날 목포역을 출발해 신보성역까지 이동하며, 시설 상태, 운행 안정성, 정차 편

의성 등을 살폈다.

전남 남해선은 목포 임성에서 보성까지 총연장 82.5km 구간으로, 지난 2002년 첫 삽을 뜬 이후 무려 20년 이상 걸린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 재검토에 들어가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됐다.

총사업비는 1조6,459억원에 달하며, 여객과 화물 운송이 모두 가능한 복합

철도 노선이다.

광주를 경유해 2시간 16분이 소요됐던 목포~보성 구간 이동 시간이 1시간 3분으로 대폭 단축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전남 서남권의 영암, 해남, 강진, 장흥과 인근 완도, 진도 등 도서·내륙 지역 주민도 철도를 이용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정식 개통은 9월 27일로 예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시승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교통약자를 고려해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신설역 유인화 운영, 역사 내 안내체계 정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전남 남해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전남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도 정차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자원과 산업단지를 연계할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배추 생산 안정화·국산 김치 보호 특단대책을”

김성일 도의원, 본회의 촉구
이상기후 대응 품종 등 주문

이상기후 등 악재가 겹친 배추 생산 안정화와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10일 열린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온 상승 등으로 배추 재배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농가와 산지 유통인들이 여름배추 재배와 유통을 기피하는 등 배추 수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해남과 무안 등 터널 불배추 주산지에서는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으로 수확 전에 배추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여기에 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치면서 해남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의 70%가



피해를 입었고, 다른 지역도 단위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20% 가량이 감소했다.

올해 여름 배추 재배면적도 지난 해보다 8.8%, 평년 대비 무려 23.9%나 줄어든 약 3,400ha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추 소매 가격 역시 현재 포기당 3,196원으로, 1년 전보다 12.7% 하락했다.

김 의원은 “7~8월 배추 수확 공백기 이후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배추 수급 불안정은 국산 김치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4,756만 달러(약 67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나 급증하

는 등 배추 가격 상승으로 식당이나 단체 급식 등 대량 소비처는 저렴한 수입 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면 우리 밥상의 필수품이자 대한민국의 열이 담긴 김치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강한 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 스마트팜을 비롯한 첨단 농업기술 도입 지원 등을 통한 배추 생산 안정화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품질 기준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수입 김치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김치산업의 중심지다”며 “배추 생산 기반을 지키고 국산 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의회, 통합 국립의대 설립지원 특위 구성

김태균 의장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10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설립 안건은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 참여했다.

특별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전담 대응 기구로 전남도와 협의해 정부를 설득하고 전략 수립, 대외 홍보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도의회는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이 이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도의회는 새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약속함에 따라 어느 때 보다 국립 의대 설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균 의장은 “의과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생명권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전남 국립의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도민의 30년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시, 오늘 면접브랜딩 데이

광주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에서 ‘2025 면접브랜딩 데이’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다.

행사장 2층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기업·공기업 직무 및 인성 면접 준비전략 특강’이 열린다.

6층에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미지컨설팅 △사기업·공기업 전·현직 면접관과 모의면접 및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김용현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골퍼들은 광주 최고 수준의 SCREEN GOLF 시스템을 스크린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골퍼들은 광주 최고 수준의 SCREEN GOLF 시스템을 스크린을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세련된 공간

B1F.BOWLING
고급스텔고 프라이빗한 24시간 규모의 대형 볼링장

Floor Plan

2 - 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192(치평동) 구, 상무리신변센터동